

## 전환기 최재서의 레퍼런스와 인간성 탐구

- 가족사 연대기 소설과 전쟁 문학을 중심으로

서 승 희\*

### 차 례

- |   |  |
|---|--|
| 1. 전환의 시대, 서사의 전환                             | 3. 전시(戰時)의 양서와 휴머니즘론 :<br>『독일 전몰 학생의 편지』 |
| 2. 가족사 연대기와 '전체 속 개인'의<br>고찰 :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 | 4. 나치스 문화 이론의 조선적 비/효용                   |

### 국문초록

이 글은 1940년을 전후하여 최재서가 읽은 책과 비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최재서는 193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심리와 의식의 세계” 대신 “사건과 행동의 세계”로 전개되는 유럽 문학의 동향 속에서 ‘가족사 연대기 소설’과 ‘전쟁 문학’의 의미를 새롭게 검토하게 된다. 그는 현대적 성격의 생성과 분열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토마스 만(T. Mann)의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을 독해했고, 전쟁 문학의 휴머니즘적 가치를 비트코프(P. Witkop)가 편찬한 『독일 전몰 학생의 편지』를 통해 논의했다. 전자가 현대인의 이원적 자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20세기의 지적 인간형들을 결산하고 재정리하는 작업이었다면,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글로벌한국학부 조교수.

후자는 중일전쟁 이후 강화된 동원과 협력의 요구 속에서 전쟁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전쟁 문학의 방향성을 생각해 보는 작업이었다. 이와 같은 읽기와 쓰기는 당시 파시즘과 반파시즘 진영을 막론하고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전체성’에 대한 문학적 성찰로서 의미를 지녔다. 그러나 최재서는 1940년대 국민문학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유럽 근대 문학의 전통 속에서 비평의 레퍼런스를 찾는 작업을 중단하고, 나치스 문화 이론을 통해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폐기할 근거를 찾았다.

주제어 : 최재서, 허버트 리드, 가족사 연대기 소설, 성격, 토마스 만,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 전쟁 문학, 문학성, 『독일 전몰 학생의 편지』, 나치스 문화 이론

## 1. 전환의 시대, 서사의 전환

1938년 4월 22일자 조선일보에 수록된 『현대세계문학의 동향』에서 비평가 최재서는 나치스의 프로이트(S. Freud) 체포 소식을 알렸다.<sup>1)</sup> 프로이트의 신상에 닥친 위기는 프로이트를 이론적 대변자로 삼아 한 시대를 풍미한 “심리주의 문학의 몰락”을 예고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되었으며, 나아가 파시즘의 정치와 문학이 결코 무관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사례로서도 의미를 지녔다. 최재서 개인에게도 이는 중대한 사태였다. 1930년대 중반에 등단한 이래 최재서는 정신분석학의 문제의식에서 비평의 다양한 소스를 구해 왔다. 우선 그는 리드(H.Read) 및 리차즈(I.A.Richards)의 문학론을 『비평과 과학』에서 소개했고<sup>2)</sup>, 뒤이어 정신

1) 최재서, 『현대세계문학의 동향(상)-심리주의 문학의 몰락』, 『조선일보』, 1938.4.22., 5면.

2) 최재서, 『비평과 과학-현대 주지주의 문학이론 속편』, 『조선일보』, 1934.8.31.-9.7.

분석학의 심리 유형론과 헉슬리(A. Huxley)의 ‘심리적 리얼리즘’론을 실제 비평에 활용하며 카프의 퇴조 이후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던 문단에 새로운 이슈를 불러일으켰다.<sup>3)</sup>

그런데 이렇듯 정신분석학을 ‘새로운’ 과학적 비평 방법론으로서 자국 문단에 소개한 지 몇 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최재서는 그것의 시의성 없음을 고하게 됐다. 물론 정신분석학의 논점에 의거한 비평과 창작이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그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어로 글을 쓸 때 이론 소개와 그것의 유용성 전달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보다 전문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일본어 논문에서는 리드와 헉슬리의 비평적 딜레마가 무엇인가, 인간의 내면과 의식을 새롭게 기술한 작품들이 어떤 비판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가 등을 다루었다. 예컨대 『문학과 모랄』<sup>4)</sup>에서 그는 프루스트(M.Proust)에 대한 휴머니스트들의 비판, 조이스(J.Joyce)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비판을 언급한 후 “문학의 기능과 테마와 리얼리티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전에 없던 혼란”<sup>5)</sup>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리고 전후파(戰後派)라 불리는 일군의 시인들이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통합을 새로운 과제로 추구하고 있음을 서술했다. 이와 같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현대의 “과도기적 혼돈성”을 둘러싼 유럽 지성과 문학인들의 다양한 반응들은 “병실의 공기가 문학을 덮고 있다.”<sup>6)</sup>는 말로 대변되듯 위기 담론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1938년도에 전한 ‘세계문학’의 새로운 동향-“심리와 의식의 세계로부터 사건과 행동의 세계로”<sup>7)</sup>는 기존의 위기 담론에 전쟁과 파시즘의 확산이라는 당대의

3) 최재서, 『풍자문학론-문단 위기의 일 타개책으로서』, 『조선일보』, 1935.7.14.-21. ; 『리아리즘의 확대와 심화-『천변풍경(川邊風景)』과 『날개』에 관하여』, 『조선일보』, 1936.10.31.-11.7.

4) 이 제목은 번역자 김활이 새로 붙인 것으로 보인다. 원 출전인 『改造』(1936.3)에 수록된 이 글의 제목은 「英國評壇の動向」이었다.

5) 최재서, 『문학과 모랄』(김활 역), 『최재서 평론집』, 청운출판사, 1961, 35쪽.

6) 최재서, 『현대 주지주의 문학이론의 건설-영국 평단의 주류 1』, 『조선일보』, 1934.8.6., 2면.

문제가 가세하며 만들어진 것이었다.

최재서는 리드의 『현대소설론』을 인용하며<sup>8)</sup> 유럽에서 대두하고 있는 “좀더 남성적인 힘의 문학-서사시와 서사극과 행동소설”을 “어떤 단체적 정신을 구상화(具象化)하여 일정한 목적하에 결정되는 행동을 나타내고 또 그 목적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가치에 의하여 서사의 단순한 정력을 재가(裁可)”하는 문학이라 설명했다.<sup>9)</sup>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의 내셔널리즘 문학, 프랑스의 행동적 휴머니즘 문학 등을 거론하며 이것이 파시즘과 반파시즘 진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임을 짚었다. 영미 문학도 이러한 경향에서 예외는 아니었는데, 미국의 헤밍웨이(E. Hemingway)와 포크너(W.Faulkner), 영국의 루이스(P.W. Lewis) 등이 쓴 “남성적”, “정력적”, “영웅적” 소설들을 살펴본 후 그는 매우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헤밍웨이와 포크너 소설의 육체 쾌락, 범죄, 정신 착란, 그리고 루이스의 예술적 히틀러주의가 리드가 말한 “단체적 정신은커녕 자기 자신의 모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행동적 인간”은 있어도 리드가 강조한 “의식과 행동이 조화된 이상적 인간”이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은, 바꿔말해 ‘단체적 정신’을 들

7) 최재서, 『현대세계문학의 동향(중)-서사 문학의 제 단계』, 『조선일보』, 1938.4.23., 5면.

8) 김윤식은 최재서의 리드에 대한 논의가 번역 비평의 수준에 머물렀다고 논한 바 있다.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1』, 일지사, 1984(1999), 241-244쪽. 실상 최재서의 논의가 리드 연구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 공과 과가 무엇인지 전문적으로 논할 만한 능력이 필자에게는 없다. 다만 최재서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라는 두 상이한 예술의 경향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순 없으며, 리드의 핵심 개념인 ‘개성’을 경시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1940년대 국민문학 시대 이전까지 최재서는 창작자의 개성(비평가의 경우 감수성)이 시대적, 현실적 과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다양한 방법론을 타진했다. 최재서는 시대적, 문학적 논점의 이동에 따라 리드의 창작 과정론에서 모럴론, 그리고 서사시론 등 다양한 문헌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교문학적 고찰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향후 의미 있는 논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9) 최재서, 『현대세계문학의 동향(상)-심리주의 문학의 몰락』, 『조선일보』, 1938.4.22., 5면.

러싼 서사 실험이 부족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sup>10)</sup> 그렇다면 의미 있는 서사로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현대 작가로서 예술적인 장편소설이라도 써 보라는 야심을 가진 사람이면 연대기 소설이나 그러치 않으면 보고 소설박계는 쓸 주제가 없지 않은가 하는 결론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어차피 서사소설을 쓰려면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활동시키고 혹은 강조하는 대사건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건의 진도는 완만할망정 인물들이 행동할만한 충분한 공간적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전자가 보고 문학과 후자가 연대기 문학이다.

연대기 문학이나 보고 문학이 현대소설의 왕좌에 오른 게 됨에 대하여 다만 작가의 기술적 이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정치적 사회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기술적 각도로만 본대도 현대 문학은 이 두 황야에 자기 수완을 시험할 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한다.<sup>11)</sup>

인용문에서 최재서는 시대성과 예술성을 두루 확보할 수 있는 창작 방법론으로 연대기 문학과 보고 문학을 거론하고 있다. 통시적으로 연대기를 그리거나 공시적으로 어떤 사건을 조명하는 가운데 전환기에 처한 현대의 실재와 전망을 두루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과거와 같이 조선이 제외된 세계문학이 아니라 조선을 포함한 세계문학의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이러한 탐색은 필수적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비평가 최재서도 이 여정에 동참했다. 다만 최재서의 전환기는 영미의 문학적 스승들의 그것보다 더 복잡하고 긴박한 것이었다. 1930년대 후반에 리드는 아나키즘의 입장에서 새로운 문헌들을 작성했다고 알려져 있다.<sup>12)</sup> 그러나 최재서는 자기 비평의 기원을 이루는 서구 이론을 떠나지

10) 최재서, 『현대세계문학의 동향(중)-서사문학의 제 단계』, 『조선일보』, 1938.4.23., 5면.

11) 최재서, 『현대세계문학의 동향(하)-연대기 문학과 보고 문학』, 『조선일보』, 1938.4.24., 5면.

12) 장갑상, 『Herbert Read의 문학비평관에 대한 연구』, 『새한영어영문학』 2, 새한

못한 채 서구의 몰락과 일본발 신질서를 지켜보며 문학의 장래를 타진해야 했다.

이 시기 최재서의 소설론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선행 연구가 다수 제출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식민지 시기 최재서의 비평론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한 이양숙의 경우, 최재서의 가족사 연대기 소설론이 전체주의 사상을 긍정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논평한 바 있다. “혈통과 민족에 대한 강조, 각 사회 단위에서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것, 민족의 근원을 탐구하는 것, 이를 통해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양양하는 것”<sup>13)</sup> 등에서 당대 독일과 일본의 파시즘적 사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최재서의 가족사 연대기 소설론을 서사시적 지향의 중간 단계로서 배치하며 국민문학론으로의 전환이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논리적으로 해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재서는 “단체적 정신”을 반/파시즘 진영을 막론한 시대의 공통된 요청으로서 파악했다. 따라서 국민문학 비평에서 본격화되는 파시즘적 사고 체계를 소급 적용하기보다는 서구 근대를 전제로 한 기존의 문학(관)과 새로운 시대의 구호가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양상에 보다 강조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이진형의 경우 최재서, 임화, 김남천의 비평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시대적 지평 속에서 최재서의 소설 장르 이론이 가지는 공통성과 고유한 의미를 밝혀냈다. 이양숙과 마찬가지로 이진형은 최재서의 서사시론이 외형상으로 루카치의 이론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실상 전혀 다른 인식적 기반에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여기에 이르는 최재서 소설론의 난맥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최재서의 가족사 연대기 소설론은 “세대의 유전을 물리적 시간에 따른 객관적 사태로 여기고 가풍과 혈통을 세대를 통해 전수되는 보편적 가치로 간

영어영문학회, 1974, 67-68쪽.

13) 이양숙, 『한국 근대 문예 비평의 논리』, 월인, 2007, 172쪽.

주”<sup>14)</sup>한 일종의 형식론으로서 ‘가치’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규명을 생략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공백의 지점에 일본 정신이 새로운 가치로 승인되면서 최재서 글쓰기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이러한 견해는, 경성제대의 낭만주의나 서구의 주지주의 등 거대한 사조로 최재서의 비평관을 통관해내려는 논의들과 달리 비평 텍스트의 실재를 천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최재서 비평의 전개를 논리화하는 과정에서 재고할만한 서술도 눈에 띈다. 가족사 연대기 소설의 문제점 때문에 그 대안 모색의 일환으로 르포르타주에 주목했다는 견해 등이 그것인데, 동시기에 병렬적으로 이루어진 글쓰기들의 인과 관계를 결정짓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요컨대 최재서의 전환기는 ‘주지주의에서 ‘친일’로’라는 자명하면서도 목적론적인 도식으로 간명하게 정리되지 않는 지향과 실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판사를 운영하며 총독부에 협력했으나, 동시에 조선 문학의 자존을 위한 각종 기획을 선보였고<sup>15)</sup>, 일본어 번역가로서 하버드대 교수 배빗(I. Babbitt)의 논저를 도쿄에서 간행했으며<sup>16)</sup>, 조선 비평계의 핵심 논제에 관여했던 그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논하기 위해서는 많은 참조점들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특히 1940년을 전후하여 그가 주목했던 책에 집중하여 이 문제를 풀어가 보고자 한다. 『인문평론』에 연재된 『현대소설연구』 시리즈가 보여주듯 최재서는 조이스, 토마스 만(Thomas Mann), 혁슬리, 말로(A. Malraux), 지드(A. Gide) 등의 소설을 새롭게 혹은 다시 읽었는데, 이 중 토마스 만의 소설은 전환기에 이르러 비로소

14) 이진형, 『193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의 소설 이론-입화, 최재서, 김남천의 소설 장르 논의』, 소명출판, 2013, 178쪽.

15) 인문사를 바탕으로 전개된 최재서의 출판 기획에 대해서는 서승희, 『인문사(人文社)의 출판 기획 연구-단행본 출판과 총서 기획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8.; 「식민지 후반기 조선문학의 재생산과 전승의 기획-인문사(人文社)의 출판 기획 연구 2」, 『우리문학연구』 62, 우리문화회, 2019. 참조

16) Irving Babbitt, 『루소-와浪漫主義』, 崔載瑞 譯, 改造社, 1939. 참조.

읽게 된 책에 속한다. 그런데 선행 연구는 가족사 연대기의 형식론에 집중한 나머지 최재서가 정작 논평하고자 했던 핵심 주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편 보고 문학과 관련해 선행 연구들은 말로의 소설을 주로 언급했으나, 눈앞의 전쟁이라는 사태와 관련해 그가 눈여겨보고 있던 것은 일본의 번역서였다는 사실도 논의해 보고 싶다. 이를 통해 ‘전체주의’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전체성’에 대한 탐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규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특정 시기의 몇몇 텍스트를 다루는 이 글의 논의는 최재서 비평의 전개 과정을 큰 틀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은 아니겠으나, 전환기 최재서의 지적 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아가 일독(日獨) 문화 교류가 구체화되던 시기, 일본의 식민지에서 독일의 문화적 텍스트들을 어떻게 읽고 자국 문단에 적용하고자 했는가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으로서도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 2. 가족사 연대기와 ‘전체 속 개인’의 고찰 :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1938년에서 1940년에 걸쳐 최재서는 토마스 만의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Buddenbrooks)』(1901)과 관련된 글을 여섯 편 썼다. 1929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적 ‘명작’이었으나 식민지 조선에서 널리 읽힌 작품은 아니었다. 토마스 만은 나치스에 대항하는 망명 지식인으로서 명성을 지니고 있었을 뿐 러시아나 프랑스, 영미권의 문학처럼 조선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1940년에 이르러서야 토마스 만의 단편소설 『묘지로 가는 길』이 『인문평론』 4호(1940.1) 노벨문학상 작품선 코너에 수록됐다.<sup>17)</sup> 이 코너에 수록된 소설

17) 토마스 만 수용의 현황에 대해서는 김륜욱, 『토마스 만 작품의 한국 내 수용 현



번역은 최재서와 영문학을 전공한 시인 입학수가 번갈아 가며 맡았는데, 토마스 만의 소설은 입학수가 번역했다. 『묘지로 가는 길』과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 모두 독일어 원작보다는 영문 번역본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와나미 문고(岩波文庫)로 발간된 『トオマス・マン短篇集』(實吉捷郎 역, 1930), 『ブッデン브ロオク一家』(成瀬無極 역, 1937) 등이거나 신초사(新潮社) 세계문학전집에 수록된 일본어 번역본을 읽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최재서에게도 토마스 만의 소설은 처음부터 주요 참조 대상이 아니었다. 1935년 4월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된 지적협력국제협회 담화회를 소개하는 글<sup>18)</sup>에서 토마스 만은 소설가이기보다는 서구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서 등장한다. 토마스 만은 담화회에 제출한 서간문에서 현대의 청년들이 문화를 향한 개인적 노력을 기피하고 집단적 행동에 도취해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시작된 유럽의 지성 포기가 선전, 폭력주의, 감상적 내셔널리즘, 신비주의, 미신, 몽롱 철학, 비합리적 영웅주의, 선정문학 등을 낳으면서 인간의 예지를 질식할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이는 현대의 병폐를 요약한 것으로서 회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유럽의 지식인들은 현대의 위기를 구제할 방책으로 장차 만들어내야 할 ‘이상적 인간’에 방점을 두고 개인의 자유, 지성인의 반성, 휴머니즘의 의의 등을 논의했으며, 이는 멀리 조선에까지 소개될 만큼 전 세계 지식인의 주목을 받았다.

최재서는 파시즘의 문화 통제에 대항하는 “지성 옹호”의 움직임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도 이 논제 자체에 동참하기보다는 지성과 조선 문학의 관계로 초점을 변용하여 글을 써나갔다. “우리들에게 절실한 문제는 어떠케 지성을 옹호할까?가 아니라 옹호할 지성이 있느냐?하는 것이다.”<sup>19)</sup>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그가 주목한 것은 조선 문단을 대표

황 및 양상, 『독일언어문학』 15, 독일언어문학연구회, 2001. 참조

18) 최재서, 『이상적 인간에 대한 규정-지적협력국제협회 담화회 보고』, 『조선일보』, 1937.8.24.-28.

하는 작가 정지용과 이태준의 현재였다. 그는 이들 “조선적 작가”들에게 “경애”를 표하면서도 정지용이 가톨릭시즘으로, 이태준이 동양적 체관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했다. 시인이 지적으로 진보해 나간다면 현대성에 부딪히게 마련인데 정지용은 종교적인 데로 나아가고 있고, “자와 타를 비교 분석하여 판단하고 비평”하는 데서 지성이 표현되는데 이태준은 “외국종의 산문정신”을 버리고 “동방 정취에 순절”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현대적 의식으로 현대의 문제를 취급할 수는 없는가 라는 것이 최재서의 의견이었다. 그런데 앞 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외국종의 산문정신” 그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 상황에서 조선의 소설가가 추구해야 할 현대성과 산문정신의 실체를 당장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서를 비롯한 당대 비평가들이 확신을 가지고 공동으로 추진하던 산문의 과제가 없지는 않았다. 통속적인 장편소설이 범람하면서 그들은 입을 모아 장편소설 개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편소설의 대중 추수성이 신문 연재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한 이들 지식인들은 소설의 출판 관행을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연재가 아닌 전작(全作)으로 장편소설을 쓰고 인문사의 총서 시리즈로 출판하여 창작과 비평을 아울러 촉발하자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김남천의 가족사 연대기 소설 『대하(大河)』(1939)가 인문사 전작장편소설 총서 제1권으로 탄생했다. 또 다른 중견 작가인 한설야, 신인 김사량도 가족사 연대기 소설을 집필하는 등 서구에서 이미 유행하던 형식이 조선에서도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때 비평가로서 최재서가 가족사 연대기 소설에 관한 레퍼런스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토마스 만의 가족사 소설 붓덴브로-크 일가』(『동아일보』, 1938.12.1.)

19) 최재서, 『문학, 작가, 지성-지성의 본질과 그 효용성 (1)』, 『동아일보』, 1938.8.20., 3면.

는 보다 더 훗날 쓰이는 『현대소설연구-토마스 만 붓덴브로-크 일가』(『인문평론』, 1940.2.,1940.3.)의 원형이 되는 글이다. 이 글은 20세기의 새로운 소설 유형으로서 가족사 연대기 형식을 짚고 소설의 인물을 소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최재서가 여기서 ‘20세기’라는 제한을 굳이 붙인 이유는 이전 시대 가족사 소설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19세기 가족사 소설이 가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단순한 스토리인 데 반해, 20세기의 가족사 소설은 가족의 역사를 통해 사회의 변동과 시대 및 전통의 추이를 그려냈다. 예컨대 요한 부덴브로크 1세와 2세, 제3대 토마스와의 그의 아내 게르다, 그리고 토마스의 동생들인 크리스찬과 토니, 제4대 하노로 이어지는 몰락의 과정은 한 가문의 개인적 역사는 물론 북독일 뤼베크의 상회를 중심으로 근대 부르주아의 형성과 그 추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차례로 소개한 후, 흥미롭게도 최재서는 스마트하고 위트 있는 프랑스 작가를 모방하는 것은 불가해도 토마스 만은 “우리들이 스승 삼을 수 있는 작가”라 언급하고 있다. 예술의 다양한 실험에 호의적이었던 그가 왜 이러한 단서를 붙였을까?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양에서 구라와 문화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들의 번민”<sup>20)</sup>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다양한 텍스트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교양의 정신』에서 최재서는 자기 개성의 양식이 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것이 교양의 정신이라 하면서도, 이질적인 문화를 너무 많이 섭취한 탓에 자아 분열을 일으킨 예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고 썼다. 이는 서구와 일본을 거쳐 근대적 문학 개념을 받아들인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앙드레 지드의 『사전꾼들(Les Faux-Monnayeurs)』처럼 고도의 형식 실험을 실천하기보다<sup>21)</sup> 토마스 만의 리얼한 필치를 통해 착실히 ‘수업 시대’를 밟는 것이 온당하다고 제

20) 최재서, 『교양의 정신』, 『인문평론』, 2호, 1939.11, 28쪽.

21) 최재서는 『인문평론』에 연재하는 『현대소설연구』 시리즈에 『사전꾼들』 비평을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잡지의 폐간으로 이 글은 수록되지 못했다.

안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재서는 지도 비평의 자세를 일부 견지한 채 소설 전반의 가치를 논하는 글을 쓰기도 했지만, 연애, 교훈, 임종 등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세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책을 소개하기도 했다.<sup>22)</sup> 그러나 비평적 관심사를 분명히 드러낸 글은 『인문평론』에 연재한 「현대소설연구-토마스 만 붓텐브로-크 일가」이다.<sup>23)</sup> 여기서 우선 짚고자 했던 것은 가족사 소설의 개념과 특징이다. 가족을 다루는 소설에는 중류 계급 시민의 가족 관념과 생활을 보여주는 가정 소설, 가정생활을 사회 문제로서 다루는 입센(H. Ibsen) 식의 문제 소설 등 여러 유형이 있다. 그런데 가족사 소설은 어떤 가족의 역사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취급하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가족사 연대기 소설’이라 명명할 수 있다. 극적 형식이나 논리적 인과 관계에 따라 서사를 전개하기보다는 무수한 에피소드들을 엮어서 “세대의 교체를 통하여 본 시간의 흐름, 그리고 그것이 주는 인생의 의미”<sup>24)</sup>를 추구하는 것이 곧 가족사 연대기 소설의 이념이다.

그런데 토마스 만과 더불어 영국의 골즈워디(J. Galsworthy), 프랑스의 마르탱 뒤 가르(R. Martin du Gard) 등 현대의 탁월한 작가들이 일제히

22) 최재서, 「작가의 다양성-토마스 만의 작품에 나타난 연애 (1)」, 『조선일보』, 1940.2.29.; 최재서, 「작가의 유모아-토마스 만의 작품에 나타난 교훈 (2)」, 『조선일보』, 1940.3.1.; 최재서, 「작가의 운명관-토마스 만의 작품에 나타난 임종 (3)」, 『조선일보』, 1940.3.2.

그밖에 최재서는 ‘양서(良書) 안내’ 코너에 독일 문학자 사토 코이치(佐藤晃一)가 편역한 토마스 만 평론집을 소개하는 「‘토마스 만’의 시대의 요구」(『조선일보』, 1940.8.2.)를 게재한 바 있다.

23) ‘현대소설연구’ 시리즈는 “비평의 알바이트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평론가가 한 테마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연구의 성과”를 발표하되 “아카데미산의 순학술적 연구”와 달리 “시사성과 효용성에 특별한 관심과 용의를 가진 글”로 정의되었다. 한편 내용에 있어서는 인간 탐구, 기교에 있어서는 실험적 방법의 분석을 중심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최재서, 「특집-昭和 15년도 문단 총결산-전형기의 평론계」, 『인문평론』 14, 1941.1, 10-12쪽.

24) 최재서, 「현대소설연구-토마스 만 붓텐브로-크 일가」, 『인문평론』 5호, 1940.2, 114쪽.

가족사 연대기 소설의 창작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최재서는 골즈워디의 소설 『포사이트 가 이야기(The Forsyte Saga)』(1922)의 제목 속 ‘Saga’를 토대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 있다. Saga란 중세 아이슬란드의 전설을 집대성한 구송 문학으로, 영웅 속에 구현된 민족의 성격과 운명을 노래하는 일종의 서사시를 가리킨다. 따라서 골즈워디의 소설 제목은 가족사 연대기 소설이 현대 시민 사회의 서사시에 대응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토마스 만과 골즈워디의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듯이 가족사 연대기 소설은 자본가를 주인공으로 삼아 그 가족을 취급하면서 사회 정세 속에서 융성, 절정, 몰락의 과정을 걷는 한 가족의 운명을 그려낸다. 여기서 자본가가 고대의 영웅을 대신한다면 그 가족은 고대의 민족에 해당된다. 그러나 건강하고 명량한 고대의 서사시와 달리 자본가는 자기 분열을 드러내고 그 가족들은 몰락의 과정을 걷는다. 이런 점에서 가족사 연대기 소설은 현대 문명의 성격 그 자체를 드러내는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최재서는 가족사 연대기 소설이 동시대 파시스트들과 변별되는 방식으로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치적 고려와 무관하게 예술적 직관력으로 서사를 구성해낸 토마스 만은 가족을 한 전체로 봄으로써 인간의 성격이 가족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 이것이 문학적으로 의미 있는 이유는 기존의 성격 탐구가 가족보다 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괴테(J. W. Goethe)는 인간의 성격이 세계의 대하에서 형성된다고 언급했고, 테느(H. Taine) 역시 자연적 풍토와 그 사회적 상태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성격학의 기초가 유전 연구에 있다시피 성격 탐구는 혈통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는 완전해질 수 없다고 최재서는 강조한다. 이렇게 볼 때 “주로 가족을 그리고 단순한 환경으로서가 아니라 성격의 수원지요 훈련소로서의 가족을 탐구하려는 가족사 소설은 성격 탐구의 한 경지를 개척한 문학”<sup>25)</sup>이라 할만하다.

토마스 만은 리얼리스트답게 부텐브로크 가족의 성격을 일상적인 생활-출생, 세례, 결혼, 초대, 상업상의 여행, 시정, 사망, 장례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시했다. 예컨대 요한(2세)이 딸 토니의 결혼과 이혼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건실한 실무가의 면모, 1848년 뤼베크 시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폭동에 대처하는 보수주의자로서의 한계 등은 전형적인 독일 북부 자본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자산가의 집에서 자라나서 사치스럽고 매사에 너그러웠던 요한 부인의 성격이 더해지면서 요한 부부의 자녀 세대인 토마스, 크리스찬, 토니는 각각 다른 성격의 소유자로 자라게 된다. 이들의 성격은 심리 묘사보다 정황(situation) 속에서, 또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제시되는데, 특히나 토마스와의 동생들의 대화는 “노포의 영광과 구가의 전통”에 짓눌린 토마스의 내부적 동요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부계의 근엄하고 실제적인 경향과 모계의 쾌활하고 예술적 경향의 투쟁, 그리고 이로 인한 “가장 근대인다운 내면적 고뇌”는 『토니오 크뢰거』 등의 단편소설에서도 빈번히 다루어진 테마였다. 그러나 최재서는 토마스 만의 가족사를 다룬 『부텐브로크 가의 사람들』에서 이 문제가 보다 전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가족에 대한 애착과 회고도 창작 동기로서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 토마스 만 자신의 성격이 어디에서 유래했으며 어떤 고뇌를 겪었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 소설을 탄생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토마스의 성격 분열의 유래 및 결과를 4세대에 걸친 가족의 연대기를 통해 추적한 “현대의 서사시”이며 “현대 인간 탐구의 한 모뉴먼트”<sup>26)</sup>로서 정리될 수 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최재서가 현대인의 이원적 자아에 대한 오래된 관심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의 질문은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조이스가 보여준 의식의 흐름과 내면 독백이 이미 시효를 만료했다면,

25) 위의 글, 117쪽.

26) 위의 글, 117쪽.

어떤 방식으로 현대인의 존재론을 다룰 것인가? 앞서 논의했듯 현재 대세로 떠오른 방향성은 전체 속의 개인인 만큼, 가족이라는 전체 속에서 인간성의 문제를 가늠해보자는 것이 그의 잠정적 결론이다. 여기서 혈통과 유전이란 가족 개개인에게 비균질적으로 배분되어 고유의 개성으로 정립되는 비가역적 요소로서 논의될 뿐 국가 및 민족을 구성하는 원리로 확장되지는 않는다. 이렇듯 궁극적으로 한 인간의 생성에 초점을 맞추는 최재서의 책 읽기는 역사적 발전이나 객관 현실을 그리는 방법론으로써 가족사 연대기 소설의 유용성을 찾던 논의들과 변별되는 성격을 지닌다. 이는 리드가 *Form in Modern Poetry* (1932)에서 다룬 바 있는 시인의 ‘개성(personality)과 성격(character)’ 문제를 다시금 소환하는 대목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이 두 개념은 일찍이 『비평과 과학』에서 다루어진 이래, 최재서의 여러 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바 있다.<sup>27)</sup> 리드는 비평의 중심 과제인 낭만주의와 고전주의의 투쟁이 작가의 정신 내부에서도 발생한다고 하며, 프로이트가 논의한 이드(id)와 에고(ego)의 관계를 기반으로 작가의 개성과 성격의 관계를 설명했다.

리드에 의한다면 개성이란 “심적 과정의 통일적 조직”이다. 그리고

27) 창작에서의 ‘개성과 성격’ 문제는, 비평의 경우 ‘감수성과 도그마’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 최재서가 『비평과 모랄의 문제』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리드는 비평에서 과학적 엄밀성이 중요하긴 하나 어떤 법칙의 완성에 열중한 나머지 대상과 동떨어진 개념을 만들고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무감각한 주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비평가는 도그마를 조심스럽게 세우되 일단 도그마가 고정되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부단히 어떤 방향으로 향하여 밀고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를 밀고 나가게 하는 힘은 그 자신의 정서여야 하며 비평의 동기는 늘 자발적이어야 한다. 요컨대 창작과 마찬가지로 비평의 영역에서도 개성을 외부적인 윤리나 가치에 무조건 종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학의 “모랄은 늘 주체와 객체, 감성과 지성, 정서와 사상이 종합하는 곳에 성립”하기 때문이다. 최재서, 『비평과 모랄의 문제』, 『최재서 평론집』, 청운출판사, 1961, 22-24쪽. 이러한 입론은 파시즘이나 내셔널리즘적 규율로 예술가의 개성을 제어하려는 시도들과 차별화된 의미망을 형성했으며, 최재서는 이를 바탕으로 조선 문단에서의 모달론을 전개해 갔다.

심적 과정이란 요컨대 감각의 종합이어서 체험에 따라 증대하고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은 고정되고 제한된 것이 아니라, 부절히 변화하고 동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변화일 뿐은 아니다. 그것은 자기 내부에 일정한 관점을 가지고서 통일을 보존하면서 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로 본다면 항상 통일적 조직체인 것이다. 그리고 감각의 잡다한 집합에다 이러한 통일성을 주고 윤곽을 형성하는 것은 지성 - 즉 내재적 판단 작용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것은 그 판단 작용이 내재적이라는 점이다. 개성의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판단 작용은 우리들 자신의 감각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와 그를 감각 자신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 아니어서 아니 된다. 다시 말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지도권이 확립된 지성이 아니어서 아니 된다. 만일에 이 통일력이 내재적이 아니라 외래적이라면 그 경우에 생겨나는 것은 충동의 억압이고, 그 결과는 성격이다. 성격이란 이리하여 결국 개성이 어떤 외부적 이념에 들어맞도록 자기 자신을 고정하고 제한하여서 형성되는 것이니 말하자면 개성의 비개인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sup>28)</sup>

이처럼 리드는 예술 창작의 근원을 개성에 두되, 개성과 성격의 조화 속에서 예술의 생성을 논의했다. 그러나 그 둘의 조화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비평과 모랄의 문제』에서 현대 예술가들이 처한 이 문제는 ‘리드의 고민’이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예술가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풍부하고 보편적인 개성을 가지고 싶다. 그렇지만 사회인으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견고하고 영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싶다.”<sup>29)</sup> 이는 토마스의 성격에 내재된 ‘관상가’와 ‘실제가’로서의 이중적 면모, 혹은 토마스와 크리스찬의 대립 구도 등 소설의 핵심적 인간상을 해명해주는 이론적 근거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물의 성격’을 지칭할 때 성격이라는 용어와 정

28) 최재서, 『현대소설연구-토마스 만 붓텐브로-크 일가』, 『인문평론』 6호, 1940.3, 51-52쪽.

29) 최재서, 『비평과 모랄의 문제』, 『최재서 평론집』, 청운출판사, 1961, 22쪽.



신분석학적 견지에서 “개성의 비개인적 양상”을 뜻하는 성격이라는 용어는, 다 같이 성격으로 번역되기는 했어도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최재서도 ‘개성’과 ‘성격’을 ‘사적 자아’와 ‘공적 자아’, ‘센티멘털리스트’와 ‘리얼리스트’ 등으로 바꾸어 쓰기도 하고, 페르낭데스가 논한 ‘개성의 인’과 ‘역할의 인’, 루이스가 언급한 ‘시인’과 ‘행동인’ 등을 끌어다가 설명하기도 하지만, 용어의 맥락을 엄밀히 분리해 놓고 있지는 않다. 이 글에서 중요했던 것은 이론과 용어의 엄밀성이 아니라 토마스의 내적 균열이 지닌 현대적 의미를 짚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최재서는 시대가 요청하는 서사성과 산문정신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가족사 연대기 소설을 발견했으나, 현대 “인테리”의 회의와 방황이라는 본래의 관심사에 비추어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을 분석했다.<sup>30)</sup> 이는 최재서라는 비평가의 감수성에 충실한 글쓰기로서 20세기 현대에 탄생한 지적 인간형을 결산하고 재정리하는 데 일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

30) 최재서가 리드의 개성과 성격론을 응용해 현대인의 내면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은 최재서의 지식인-비평가로서의 아이덴티티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된다. 최재서는 『문학발전시대-일 학생과 비평가의 대화』(『조선일보』, 1934.11.21.-29.)에서 19세기 영문학을 전공하는 조선인 학생을 일컬어 “땅 위에 떨어진 천사”라 표현한 바 있다. 문학을 향한 개인적 욕구-개성이 ‘천사’로 연결된다면 조선의 현실에 대한 자각-성격은 ‘땅’으로 연결될 수 있다. 조선적 현실에서 너무도 이질적이며 이해받을 수 없는 개성의 소유자가 바로 영문학 전공자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재서는 『현대 작가의 고독』(『삼천리문학』, 1938.4)에서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학생이 교문을 나서는 순간 도처에서 마주치게 되는 “빈곤의 흉악한 얼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 자신도 이 ‘얼굴’을 외면할 수 없어 조선 문단의 비평가로 진출했지만, 그는 어느 정도 세계와 분리된 채 학문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아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가 대전 이후 영미 지식인의 고민과 방황 문제를 되풀이하여 주목하고 언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맥락은 다르지만 ‘현실과 불화하는 지식인의 정체성’의 자기의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는 식민지 조선이라는 자기의 맥락 속에서 20세기의 공통 화두에 참여했다. 반면 그가 볼 때 조선 문학은 현대의 공통 화두에 동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지성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빈곤의 서커스에만 골몰하는 일부 문학, 통속 문학, 복고적 문학에 대한 그의 비판은 이런 전제 속에서 마련되었다.

금 바로 여기, 전쟁이라는 사태에 처한 인간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 그는 또 다른 레퍼런스를 필요로 했다. 『독일 전몰 학생의 편지』 읽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 3. 전시(戰時)의 양서와 휴머니즘론 : 『독일 전몰 학생의 편지』

1939년의 평론계를 결산하며 쓴 글에서 최재서는 평단의 새로운 이슈로 전쟁 문학을 꼽고 있다. 그는 시국과 조선 문학의 관계를 살펴본 백철, 박영희 등의 평론이 지닌 선구적 의미를 고평하면서도, 백철의 글은 시국 문학을 다소 센티멘털하게 보고 있고, 박영희의 글은 문학론이 아닌 연설이라 지적하는 등 향후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음을 암시했다.<sup>31)</sup> 그만큼 조선에서는 전쟁 문학에 대한 비평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였다. 창작이 없는 만큼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다. 중국의 국공내전(國共內戰), 에티오피아 전쟁, 스페인 내전 등을 거치며 유럽 문단에서는 일찍부터 보고 소설이 유행했고, 일본의 경우 중일전쟁 발발 이후 도쿄의 문인들이 중국에 대거 건너가면서 전쟁 관련 기사와 서사물이 쏟아져 나왔다.<sup>32)</sup> 이 시기의 조선 논단 역시 전황 소식으로 뒤덮이긴 했으나 전선에 직접 가본 조선인이 드물어서 실감을 가지긴 어려웠고 무엇보다 식민 본국 국민과 전쟁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다. 예컨대 중일전쟁 3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인문평론』의 특집 코너에서 문인들은 상찬의 언어를 나열하는 와중에도 대부분 전쟁하는 일본인을 지켜보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글을 풀어갔다. 채만식은 출정 장병들이 수송되는 광경을 목격한 에피소

31) 최재서, 『평론계의 제문제』, 『인문평론』 3호, 1939.12, 46-47쪽.

32) 최재서, 『현대세계문학의 동향(하)-연대기 문학과 보고 문학』, 『조선일보』, 1938. 4.24., 5면.

드를 토대로 글을 썼고, 입학수는 전선에 나간 경성제대 동기를, 그리고 이원조는 도쿄에 있는 대학 동창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했다. 김남천은 같은 시기에 일했던 직장 동기를 회고했으며, 중일전쟁 발발 당시 마침 도쿄에 체류 중이던 최재서는 일본인의 애국적 정열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던 기억을 더듬고 있다.<sup>33)</sup> 시국의 언어들과 적당히 혼합되어서 쓰인 이러한 이야기들은, 훈훈한 미담처럼 읽히기도 하지만 중일전쟁이 조선인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남의 전쟁이기도 했다는 점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포함한 일본, 만주, 중국을 잇는 신동아 건설에 있어서 문화적 이해와 교류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조선 문단도 전시체제(戰時體制)로 급격하게 전환되었다. 조선문인협회가 결성되고 문인 위문 사절이 파견되는 등 인적 동원이 시작됐고, 『문장』과 『인문평론』과 같은 순문에 잡지들도 예외 없이 권두언을 시국적 메시지로 장식해야 했다. 민족의 고전 텍스트를 매호 게재하며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던 『문장』은 고전 못지않게 거의 매호 일본의 보고 소설들을 발췌해 실었고<sup>34)</sup>, 『인문평론』의 경우에는 유럽 및 동아시아의 전쟁과 문화, 문학의 관계를 다루는 각종 기획, 논평, 번역물들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그리고 조선 문인을 전선에 파견한 결과로서 마침내 조선에서도 전쟁 문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출간되었다. 바로 입학수의 『전선시집(戰線詩集)』인데 이는 조선 문인 최초의 전쟁 문학이자 문학성을 겸비한 필독서로서 선전되었다.<sup>35)</sup> 그러나 먼발치에서 전선을 사흘 동안 관찰하고

33) 『특집 일지사변 삼주년 기념』, 『인문평론』 10호, 1940.7, 88-106쪽.

34) 『문장』에 수록된 ‘전선문학선’의 의미에 대해서는 하재연, 『『문장』의 시국 협력 문학과 「전선문학선」』, 『한국근대문학연구』 22, 한국근대문학회, 2010. 참조.

35) 『인문평론』 창간호는 『전선시집』 광고를 첫 번째 광고로 수록했다. 광고 문구는 아래와 같다.

조선 최초의 전장 문학 : 거변에 황군 위문 조선 문단 사절이 파송되매 저자 입학수 씨는 조선 시단을 대표하여 일행에 참가하였다. 씨는 전후 2개월 동안 북지 전선을 치구(馳驅)하여 포연탄우의 밑을 멀리 전선까지 진출하였다. 이 시집

나서 쓴 이 시집<sup>36)</sup>을 일반적인 전쟁 문학과 동일선상에 놓긴 어려운 노릇이었다. 조선어로 된 진정한 전쟁 문학은 번역서의 형태로 왔다.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의 중군기 『麥と兵隊』(改造社, 1938)를 조선어로 번역한 『보리와 병정(兵丁)』(조선총독부, 1939)이 그것이다.<sup>37)</sup>

검열관 니시무라 신타로(西村眞太郎)가 번역한 『보리와 병정』은 조선인들에게 중일전쟁의 실상을 알리고 전시 국민의 자세를 정비하게 하는데 목표를 둔 조선총독부의 기획물이었다.<sup>38)</sup> 최재서는 당국의 기획에 부응하여 이 책의 출간 이후 매일신보에 『보리와 병정』 독후감을 2회에 걸쳐 연재했다.<sup>39)</sup> 독후감에서 최재서는 일본어 원저와 조선어 번역본을 모두 읽었음을 밝히면서 책의 문학적 가치와 시국적 가치, 언어적 가치를 아울러 논했다. 우선 그는 『보리와 병정』을 새로운 전쟁 문학의 한 전형으로 평가했다. 서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센세이셔널한 반전(反戰) 문학도, 메이지(明治) 시대의 전쟁 문학처럼 비분강개(比分剛開)가 넘치는 낭만적 문학도 아닌 “현대 문학의 산문정신의 세련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선 쓸 수 없는” 보고 문학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독자가 감격을 느낄만한 장면조차 흥분에 초점을 두지 않은 탓에 처음 읽는 사람은 산만하다는 인상을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어떠한 상상보다도 복잡하고 급격한” 전

---

은 그대에 얻은 견문과 또 일찌기 저자가 가슴에 품었던 동양적 기개가 혼연통일되어야 이루어진 조선 최초의 전장 문학이다. 시국에 적합한 독물로서 가가호호에 애독되기를 바란다.

36) 전봉관, 『황군위문작가단의 북중국 전선 시찰과 임학수의 『전선시집』』, 『어문론총』 42,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323쪽.

37) 『西村 通譯官 譯의 보리와兵丁 간행』, 『동아일보』, 1939.4.9., 2면.

38) 조선총독부와 일본인 검열관이 번역에 나선 맥락에 대해서는 이상경, 『제국의 전쟁과 식민지의 전쟁문학-조선총독부의 기획 번역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의 『보리와 병정(兵丁)』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58, 한국현대문학학회, 2019. 참조.

39) 최재서, 『西村眞太郎 씨 번역의 <보리와 병정> 독후감 (상)』, 『매일신보』, 1939. 7.22. 4면.; 최재서, 『西村眞太郎씨 번역의 <보리와 병정> 독후감 (하)』, 『매일신보』, 1939. 7.24., 3면.

쟁이라는 사실을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주관보다 기록이 중요할 수 있다고 최재서는 쓰고 있다.<sup>40)</sup> 한편 『보리와 병정』이 훌륭한 이유는 전투의 고초를 여실히 보여주면서도 전장이 아니고선 체험할 수 없는 인간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있다. 우정과 애국심, 그리고 부모에 대한 생각들은 매우 평범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전장이라는 고도의 상황에서 표출되면서 엄연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최재서는 조선어 번역의 유려함에도 호평을 표하는 등 이 책이 지니는 장점만을 요령 있게 잘 짚어냈다.

그런데 최재서가 언급했듯 “전선에 있는 황군 장병의 고초를 문학 작품에 의하여 직접 일반 민중에게 알리려는” 이 작품의 의도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관철되었는지는 의문이다. 1939년 4월 30일자 신문에 실린 총독부 도서관원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가장 많이 읽히던 책은 시국물과 산업 방면의 책이었다. 시국을 다룬 문예 서적의 경우 『보리와 兵隊』, 『黃塵』 같은 전쟁문학류는 벌써 때를 지난 감이 있고 토요다 마사코(豊田正子)의 『綴方教室(작문교실)』 같은 가벼운 것이 애독된다고 그는 밝혔다.<sup>41)</sup> 4월 초에 번역본 『보리와 병정』이 출간된 만큼 추후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당시 총독부 도서관에 출입하던 조선의 교양 있는 독자들은 전선 그 자체보다 총후의 일상생활을 다룬 『綴方教室』 쪽을 선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학생들의 독서 경향을 엿볼 수 있는 사례로서 『전문대학 학생 좌담회』(『인문평론』, 1940. 5)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 최재

40) 당시 그는 기록을 전쟁 문학의 속성이 아니라 “사실의 세기”를 횡단하는 방법론으로서 확장해서 논하기도 했다. “시대의 대하에 밀려가면서도 자기 자신과 주위와를 질서화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관찰과 기록이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본 것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예술적 개성과 민중과의 거리를 좁히는 한편, 민중의 리듬과 표정을 캐치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 그는 전망했다. 최재서, 『소설과 민중 (하)』, 『동아일보』, 1939.11.12., 3면.

41) 『도서관의 대출 상태』, 『조선일보』, 1939.4.30, 4면.

서는 각 학교에서 어떤 책이 많이 읽히는지 질문하고 있는데, 대부분 서구의 소설, 특히 노벨문학상 수상작, 일본의 베스트셀러 등을 거론할 뿐 시국물을 찾아 읽는다고 대답한 학생은 없었다. 최재서가 히노 아시헤이의 작품이 많이 안 읽히느냐 질문하자, 상상 외로 읽히지 않는다, 재미가 없다, 전우들 간의 우정은 감동적이다 등의 대답이 나왔다. 대중적 스토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특징을 최재서는 세련되게 또 호의적으로 평가했으나, 정작 이 책을 읽어야 할 독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독자 대중들이 어떤 상황에서나 재미있는 독물을 찾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도 예외적인 일도 아니다. 그러나 비평가로서 최재서는 일반적인 문학과 마찬가지로 전쟁 문학도 예술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당시 “에티오피아 모노, 서반아 모노, 지나 모노”라 지칭되던 대중작가의 보고 소설들은 배경과 스토리를 전쟁에서 취했을 뿐 구태의연한 대중 소설이므로 “삼류극장에서 보는 거와 같은 안이하고 저속한 만족”만을 충족시킨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sup>42)</sup> 그러면 그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전쟁 문학은 무엇일까? 최재서는 『보리와 병정』의 가치를 높이 사기는 했으나,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간단한 독후감을 썼을 뿐 이에 대한 글을 따로 쓰진 않았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좌담회로 다시 돌아가 학생들에게 비트코프(P. Witkop) 교수가 편찬한 『독일 전몰 학생의 편지』를 읽지 않았냐고 묻고 있는 장면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전선에 나가 사망한 독일 학생들의 편지를 모은 이 책을 읽거나 최소한 안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자 최재서는 “전쟁 문학으로선 독특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전우 간의 우정이 그 기초를 삼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반전 문학과는 판이한 인간성과 정열”을 지닌 작품이라고 설명한다.<sup>43)</sup> 그리고 이 책의 가치를 집중적으로

42) 최재서, 『현대세계문학의 동향(하)-연대기 문학과 보고 문학』, 『조선일보』, 1938. 4.24., 5면.

43) 『전문대학 학생 좌담회』, 『인문평론』 8호, 1940.5, 104쪽.

다른 비평 『전쟁 문학』(『인문평론』, 1940.6.)이 다음 호에 바로 게재되었다.

최재서가 읽은 『독일 전몰 학생의 편지』는 이와나미 서점(岩波書店)의 새로운 기획인 이와나미 신서(岩波新書)로 출간된 『ドイツ戰歿學生の手紙』(高橋健二 역, 1938)이다.<sup>44)</sup> 『독일 전몰 학생의 편지』의 신서 내 의미는 “전장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죽어야 할지 점점 커져가는 그 물음들에 대답해주고자 한 것”에 있었다.<sup>45)</sup> 실제로 이 책은 출정을 기다리거나, 이미 전장에 나가 있는 일본의 학생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나아가 이를 본떠 일본 전몰 학생들의 서간집이 출간되고 되풀이하여 읽고 기념되는 등 이 책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6)</sup> 1938년 일본어 번역판은 “전사한 학생의 편지 2만여 통 중 120여 명의 편지로 구성된 원서에서 또 한 번 50여 명으로 추려서 번역한” 판본이었다.<sup>47)</sup> 일본어 번역본의 바탕이 된 원서 자체가 1933년 나치의 정권 획득 이후 발행된 보급판<sup>48)</sup>이었던 만큼 학생들의

44) 1938년 11월 20일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이와나미 신서는 “현대인의 현대적 교양”을 발간 목적으로 내세운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의 새로운 시리즈였다. 고전과 학술을 중심에 두었던 이와나미쇼텐이 ‘현대’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중일 전쟁으로 마련되었다. 이와나미 서점의 창업자 이와나미 시게오(岩波茂雄)와 편집부는 간행사에서 “자국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미력을 다하는 것을 문화 건설의 일개 병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며 걸으려는 유희적인 제스처를 취했으나, 실상은 전시체제하의 비합리적인 강압을 견뎌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양식이 될 만한 지식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었다. 그들이 의도하던 교양에는 “지적 소비로서의 오락과 다르며 통속 도덕에 맞춰 쌓은 수양과 대립하고 전문성을 자랑하는 학술로 빠지지 않는 지적 향상주의”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교양의 대중화 또는 대중의 교양화”라는 목표를 낳았다. 이와나미에게 문화는 저속과 고답의 두 종류뿐이었으며, 전자를 후자를 끌어올리겠다는 신념이야말로 그가 기업 활동을 하는 동력이 되었다.

가노 마사나오, 기미정 역, 『이와나미 신서의 역사』, AK, 2016, 27-30쪽.

45) 위의 책, 56-57쪽.

46) 아시아태평양 전쟁 중 사망한 일본인 전몰 학생들의 서간집에 대해서는 다카다 리에코, 김경원 역, 『문학가라는 병』, 이마, 2017. 참조.

47) 위의 책, 57쪽.

편지를 취사선택하는 원리로서 내셔널리즘이 고려되었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재서 역시 『독일 전몰 학생의 편지』에 나타난 “애국심”을 중요하게 언급했고, 이 편지에 나타난 전장 체험이 “총후 국민”의 “국민 의식”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한편 번역자인 다카하시 겐지(高橋健二)가 이 책의 서문에서 인용하고 논평한 내용<sup>49)</sup>을 그대로 가져와서 “용감하게 싸운 국민”이 단지 전쟁 중에만 의미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독일의 부흥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멸사봉공의 정신” 그 자체보다는, 병사들이 전쟁에서 발견한 문화적 의의는 무엇인가, 생사의 기로에서 어떤 정신 상태에 있었는가, 전장에서 무엇을 신념으로 삼았는가 등 극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인간성 문제에 관심을 표했다. 편지에서 병사들은 죽음을 앞둔 전장 생활이 얼마나 단순하고 소박한 것인가를 이야기했다. 또한 전우들 사이의 우정을 묘사했고 찰나에 찾아드는 명량한 기분, 그리고 고국의 비전투원들을 향한 인류애를 표현했다. 인간과 자기 자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선한 것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이 그 무엇보다 두렵다고도 썼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들은 어떤 국가와 국민이라는 특수한 범주를 넘어서 보편적인 휴머니즘의 문제에 가 닿았다. 최재서가 주목한 것도 전쟁 문학의 군사적 일면보다는 이 “인간적 일면”에 있었다. 그는 『독일 전몰 학생의 편지』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공감할 수 있는 전쟁 문학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있던 것이다.

한편 최재서는 문학 비평가답게 미증유의 사태에 처한 인간에게 문학

48) ヴェイツトコップ, 『ドイツ戦歿學生の手紙』, 高橋健二 譯, 岩波書店, 1938, 1쪽.

49) 본서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는 원저 서문의 간결하고 강력한 설명에 많은 것을 부연할 필요를 느끼지 않지만, 반복해 읽을 때마다 본 역서의 마지막 편지에 쓰인 대로 “이렇게 비할 데 없이 용감하게 싸운 국민이 멸망하리라곤 믿을 수 없다는 느낌을 새롭게 가지게 된다. 그리고 패전 독일이 이십 년을 지나서 금일의 놀라운 부흥을 보이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위의 책, 2쪽.(번역은 필자)



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있다. 그가 특별히 감동받았다고 밝힌 에피소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병사가 전우에게 괴테의 시집을 빌려다 읽고 있는데, 부하 병사가 시를 좀 읽어달라고 간청했다. 그래서 그는 괴테의 생애와 바이마르의 공원, 괴테의 집안 이야기 등을 간단히 들려준 후 시를 읽어 주었다. 그러자 공장 노동자나 농촌 출신이 대부분인 부하들이 한두 사람씩 나오더니 괴테의 시를 듣고 또 듣기 시작한다. 놀랍게도 그들은 괴테의 청춘 시대 연애시가 아니라 “『달에 기함』과 같이 섬세하고 정밀하고 청정한 시”에 깊은 인상을 느꼈다. 이처럼 “내일을 모르는 병사들이 참호 속에서 고요히 괴테의 시를 낭독하고 그곳에서 영혼의 위안과 평화를 구하며 내일의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다는 사실”을 통해 최재서는 위대한 문학의 가치를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과의 좌담회에서 “전장에서 죽임과 맞서게 되면 괴테와 같은 위대한 시인의 예술은 위안과 정신적 평화를 주나빠요.”<sup>50)</sup>라고 특별히 언급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 끝에 최재서는 이 서간집의 의미가 “보고성”에 있다고 정리했는데, 이때의 보고란 전장의 실황 전달이 아니라 비범한 인간성에 관한 기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전쟁이라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초월한 생활세계에 있어서 모든 체험이 비범하달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시키고 인간성을 그 최고의 경지에까지 고양시킨다는 의미에 있어서 우선 그것은 보고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험에 대하여 우리는 인위적인 혹은 예술적인 가공을 하기 전에 우선 그것을 소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허한 정도가 필요할 줄 안다. 첫째로 그것이 전쟁에 희생된 용사들에 대한 충후 국민으로서의 의무이고 둘째로 장래의 진실하고 위대한 전쟁문학을 창조하는 데도 밑바닥이 되기 때문이다.<sup>51)</sup>

50) 『전문대학 학생 좌담회』, 『인문평론』 8호, 1940.5, 104쪽.

51) 최재서, 『전쟁 문학』, 『인문평론』 9호, 1940.6, 63쪽.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은 독법이 이와나미 시게오(岩波茂雄)가 신서를 발간한 의도에 매우 잘 부합했다는 사실이다. 이와나미 시게오를 비롯한 신서의 편집진들은 신서에 담긴 교양의 정신을 통해 전시체제하 일본의 상황을 현명하게 성찰할 수 있는 독자들이 많아지기를 희구했다. 이렇게 본다면 내셔널리즘의 독법 안에 있되 이에 매몰되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늠할 수 있는 최재서야말로 그들이 상정한 모범적인 독자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가 논의한 ‘고도의 인간성’ 문제나 ‘명작’의 보편적 가치를 식민지 상황에 대입하면 전혀 다른 의미망이 생성된다. 아주 작은 사례일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좌담회에서 조선인 학생들은 출정을 앞둔, 그리고 출정한 일본인 학생들과 상이한 감정과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최재서 역시 ‘국민’이라는 ‘전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논하지는 못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전쟁의 감정”은 다카하시 겐지가 두 명의 아들을 전장에 내보낸 채 남다른 감회로 이 번역서의 서문을 작성하고 있던 그 감정과 같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장의 서두에서 언급한 「평론계의 제 문제」라는 글에서 그는 시국을 다룬 동료 비평가들의 논의가 감상적이며 비문학적이라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비평 역시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한 조선 문학이 아니라 지나간 전쟁을 다룬 외국 문학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불균형한 시국 문학론에 속할 수밖에 없었다.

#### 4. 나치스 문화 이론의 조선적 비/효용

1940년을 전후하여 최재서는 출판사 운영, 잡지 발간, 번역, 평론, 연구 등을 동시에 진행하며 정치의 언어와 문학의 언어가 뒤섞인 글쓰기를 선보였다. 그래서 특정한 글 한 편만 읽어서는 그의 의도나 입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비평 스타일 때문이기도 한데, 최재서는 논문은

물론 비평을 쓸 때도 수많은 레퍼런스의 논지와 사례를 언급하며 글을 전개해 나갔다. 기존에 이 문제는 주로 신고전주의, 신인문주의 등으로 요약되는 흙, 배빛, 엘리엇 등의 문학론을 두루 조망하는 가운데 다루어졌다.<sup>52)</sup> 그러나 이 글은 전환기에 최재서가 읽은 작품에 주목하여 그가 ‘단체적 정신’을 사유하라는 시대의 요청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논의해 보았다.

최재서는 영미 저널과 단행본을 참조하며 이론 비평과 논문을 작성했지만, 식민지 조선의 학술 체계와 출판 상황을 고려할 때 원서 못지않게 많은 수의 일본어 번역본을 참조했던 것으로 보인다.<sup>53)</sup> 그는 일본어로 번역된 세계문학을 읽고 비평하면서도 일본(어) 학술과 문화, 번역이라는 매개를 가린 채 조선(어) 문학의 발전이라는 목표만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1940년이라는 시점에 이르러 일본 국민의 교양 함양을 의도로 기획된 이와나미 서점의 출간물을 읽고 조선어로 글 쓰는 행위는 그리 간단치 않은 맥락들을 생산해냈다. 그는 고도의 인간성이라는 측면에 집중하여 『독일 전몰 학생의 편지』를 평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도착점은 어디일까? 보편적 인간일까, 특정한 국민일까? 최재서는 두 가지 범주를 넘나들며 애매하게 글을 전개했다. 최재서 자신은 보편적 휴머니즘을 염두에 두었다 하더라도 누가 어디에서 왜 이것을 말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함의가 개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언급하지 않거나 못했다.

반면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 읽기는 일본의 전시(戰時) 출판 기획 보다는 세계문학과 노벨문학상이라는 보편적 맥락 속에서 촉발된 듯 보

52) 김활, 『최재서 비평의 인식론적 배경』, 『동서인문학』 24,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2.; 岸川秀實, 『주지주의 문학론과 주지적 문학론-비평가 최재서와 아베 토모지(阿部知二)의 비교문학적 고찰』, 『국제어문』 27, 국제어문학회, 2003.; 三原芳秋, 『崔載瑞의 Order』, 『사이間SAI』 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등

53) 예컨대 1937년 여름, 최재서는 기차 안에서 이와나미 문고판 『배덕자』(앙드레 지드)를 읽었음을 자연스럽게 서술하고 있다. 최재서, 『武藏野 통신1-배덕자의 여덕』, 『조선일보』, 1937.7.3., 5면.

이기도 한다. 그러나 최재서가 책을 읽은 시기로 보건대 이 또한 전체성을 적극적으로 사유하라는 전환기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족사 연대기’에서 현대의 서사시를 읽어냈다는 점에서 이 문헌은 종래 대일 협력으로의 경사를 보여주는 글쓰기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국가가 아닌 개인을, 영웅이 아닌 반(反)영웅을, 성공이 아닌 몰락을, 현대적 서사시의 불/가능성을 논평하는 이 글을 국민문학론과 직접 연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최재서는 토마스 만을 통해 종래 자신의 비평적 관심사였던 개성과 성격론을 완수했다. 성공적이긴 했으며 시대착오적이라 할만한 이 글은 자신을 포함한 현대 지식인의 20세기를 거대한 서사 속에서 조망하는 것이었을 뿐 전쟁기의 인간성 문제에 즉답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일찍이 주목했던 혁슬리의 냉소, 유머, 풍자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도 그 자신 역시 민중과 거리가 있는 지적 인간형에 대한 논의를 멈추지 않았다. 그가 주목한 『독일 전몰 학생의 편지』의 학생 병사들도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카테고리에 속했다. 피테의 시를 낭독해주는 엘리트 병사와 이에 귀 기울이는 무지한 병사가 공감의 장을 순간적으로나마 열었다 해도, 지식인과 민중 간 계몽의 구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전환기 최재서의 글에서 점진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논리의 한계들은 시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접속해가는 과정은 물론 엘리트 중심적 구도를 고수하는 가운데 심화된 바가 크다.

이처럼 근대적 교양과 시국적 요청의 모순적 공존 속에서 전개된 최재서의 읽기와 쓰기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발발 이후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전체성에 대한 다양한 탐문이 허용되지 않는 시대, 오로지 국가주의와 결부된 전체성만이 허용되는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943년도에 출판된 두 번째 평론집 『轉換期の朝鮮文學(전환기의 조선문학)』의 서문에서 최재서는 자신의 모든 글이 인쇄소의 독촉을 받으며 급하게 쓰인 것이라 밝히고 있다. 또한 어떤 주제를 정해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발전시킬 여력이 전혀 없었으며, “조선 문단의 전환에 있어서, 나는 불행히도 의지할 만한 이론을 갖지 못했다”고도 언급하고 있다.<sup>54)</sup> 『국민문학의 요건』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조선에 새로 건설되어야 할 국민문학이란 “유럽의 전통에 근거한 이른바 근대 문학의 한 연장선”이 아니라 “일본 정신에 의해 통일된 동서 문화의 종합을 기반으로 하여, 새롭게 비약하려는 일본 국민의 이상을 강조한 대표적인 문학”이며 “이후 동양을 지도해야 할 사명”을 띠고 있는, 전무후무한 문학을 의미했다.<sup>55)</sup> 이렇듯 근대 문학 개념에 의거한 기존 레퍼런스가 모두 폐기되는 사태 속에서 최재서가 새롭게 읽은 것은 나치스의 문화 이론이었다.

『문학자와 세계관의 문제』(『국민문학』, 1942.9)에서 최재서는 1942년 5월에 결성된 일본문학보국회의 결성 이후, “황국 문학자로서의 세계관 확립”이 문제시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관변측의 의견과 변별되는 문학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때 최재서는 독일 쾰 대학 교수이자 일독(日獨) 교환 교수로서 동양문화연구소에 체류 중<sup>56)</sup>인 뒤어크하임의 저서 『民族性と世界觀(민족성과 세계관)』(橋本文夫 역, 1940)을 인용하며 논의를 구성해 나갔다.<sup>57)</sup> 일본 교학국(敎學局)의 선장(選獎) 도서였던 『민족성과 세계관』은 1940년 일본의 주요 잡지에 게재된 뒤어크하임의

54) 최재서, 『머리말』, 『전환기의 조선문학』, 노상래 역, 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6쪽.

55) 최재서, 『국민문학의 요건』, 위의 책, 49쪽.

56) デュルクハイム, 金載元 譯, 『歐羅巴文化の理念』, 『國民文學』, 1943.2, 49쪽. 저자 소개 참조.

57) 독일어 표기 없이 デュルクハイム로만 이름이 표기되고 있기 때문에 뒤어크하임(Dürckheim, Karlfried Graf, 1896-1988)은 에밀 뒤르켄(Durkheim, Emile)으로 오인되기도 했다. 이양숙, 『일제 말기 비평의 존재 양상-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28, 한국비평문학회, 2008. 그러나 최재서의 뒤어크하임 참조 및 인용은 나치즘과 천황제 파시즘의 교호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사회영에 따르면 뒤어크하임은 문화 외교관으로 1938년 일본에 파견된 이후, 1940년부터 1947년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체류했다고 한다. 사회영, 『제국 시대 잡지 국민문학과 한일 작가들』, 도서출판 문, 2011, 119쪽.

소논문들을 묶어서 펴낸 책으로서, 당시 일독 문화 교류의 양상과 나치스 문화 이론의 성격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이밖에도 『生活と文化』, 『生の倫理』 등 최재서도 언급한 바 있는 뒤어크하임의 여러 저서들은 독일의 나치즘은 물론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써 폭넓게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는 이미 1930년대부터 나치스 담론이 지적 유행처럼 번졌으나 파시즘 문학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반응이 존재했다. 그러나 1940년대에 들어서 전체주의와 애국주의에 회의를 표하는 언어가 자취를 감추었으며, 특히 시문학의 경우 나치스 문학을 통해 호전적인 주제와 표현을 개발해 나간 것으로 확인된다.<sup>58)</sup>

『민족성과 세계관』에 수록된 『민족성과 세계관』에서 뒤어크하임은 기존에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던 세계관이라는 용어와 특정 민족의 생활을 가리키는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민족의 세계관에 다른 민족과 공유할 수 없는 본질적 특징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이것이 피와 흙, 신화와 역사, 선조의 유산에서 유래된 민족 공동체의 천부적 사명을 자각하는 데서 마련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개개인의 총합이 아니라 유기적 전체로 이루어진 민족 공동체에서 개별적, 독립적 존재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하여 “총통을 중심으로 하여 철과 같은 결단으로써 선조 전래의 유산을 수호하고, 이제야말로 선조의 유언을 받들어 진정한 나라, 독일국을 건설”<sup>59)</sup>하자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이와 같은 주장이 일본에서 통용될 수 있었던 것은 ‘총통’을 ‘천황’으로 치환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발 국민문학의 입장에서 뒤어크하임의 논의들은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난점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일본적 세계관”이 조선이라는 이

58) 나치즘에 대한 조선 문단의 인식과 ‘친일 전쟁시’의 이념적 구조에 대해서는 허혜정, 『나치스 문학과 친일 전쟁시(親日戰爭詩)의 논리』, 『동악어문학』 65, 동악어문학회, 2015. 참조.

59) デュルクハイム, 橋本文夫 譯, 『民族性と世界観』, 理想社出版部, 1940, 20쪽.

질적 범주를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뒤어크하임은 독일적 세계관의 기원과 형성, 역사를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일본의 신화와 역사, 피와 흙에 대한 지식과 실감을 가지지 못했던 최재서는 일본적 세계관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 자세히 쓸 수 없었다. 그가 유일하게 자신 있게 쓸 수 있던 것은 ‘무엇이 일본적 세계관에 위배되는가’의 문제였다. 이는 병적 개인주의와 타락한 자유주의가 인류 사회에 몰고 온 문제들을 과장하고 극단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제 그에게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란 지나간 시대의 낡은 사상인 동시에 맞서 싸워야 할 적국(敵國)의 세계관에 불과했다. 근대 문학의 유산마저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유독 토마스 만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토마스 만이 자국을 버리고 망명한 지식인이라는 조건에서 기인한 바가 컸다. 그래서 토마스 만의 민주주의는 무책임한 코스모폴리타니즘으로,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은 국민 문화의 건전성 및 명량성과 거리가 먼, 황폐하고 퇴락한 이야기로 강등되어야 했다.<sup>60)</sup> 이러한 전환은 『독일 전몰 학생의 편지』의 번역자 다카하시 겐지가 헤르만 헤세로부터 나치즘으로 이월하는 과정<sup>61)</sup>에 비견할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재서는 독일과 일본의 등가 관계에 완벽히 포함되지 않는 조선의 민족성으로 인해 매끄럽지 못한 담론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야 했다. 국가의 전쟁에 개인주의, 자유주의 세계관이 왜 위협적인가를 논리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그는 뒤어크하임의 민족 공동체론을 빌려 왔지만, 자기 논의의 수신인이 ‘내지의 평론가’인 경우에는 “나찌투의 민족순혈론”을 들어 국민 문화 건설에서 “조선 동포”를 제외하지 말라고 비판했다.<sup>62)</sup> 그가 여러

60) 최재서, 노상래 역, 『문학자와 세계관의 문제』, 『전환기의 조선문학』, 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85-86쪽.

61) 독일 문학자 다카하시 겐지의 전환에 대해서는 다카다 리에코, 김경원 역, 『문학 가라는 병』, 이마, 2017. 참조.

62) 최재서, 노상래 역, 『조선문학의 현단계』, 『전환기의 조선문학』, 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75쪽.

글에서 나치스의 이론을 인용하면서도 이를 이론의 구심점으로 밀고 나가지 못했던 것은 조선-일본 간 피와 흙의 차이가 논리의 패착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 각각 이십여 년의 간격을 두고 쓰인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독일 전몰 학생의 편지』, 『민족성과 세계관』 등이 1940년을 전후하여 최재서라는 비평가에게 읽히는 과정은 식민지 제국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지식과 교양의 순환, 특히 ‘전환기’의 독서(사)라는 확장된 논제를 생각해 한다. 향후 1940년대 국민문학 시대의 책 읽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망하며 이 문제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국민문학』, 『문장』, 『삼천리문학』, 『인문평론』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최재서, 『전환기의 조선문학』, 노상래 역, 경산: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최재서, 『최재서 평론집』, 서울:청운출판사, 1961.  
火野葦平, 『보리와 兵丁』, 西村眞太郎 譯, 京城朝鮮總督府, 昭和14 (1939).  
デュルクハイム, 『民族性と世界觀』, 橋本文夫 譯, 東京:理想社出版部, 昭和15(1940).  
Babbitt, Irving, 『ルーツと浪漫主義』, 崔載瑞 譯, 東京:改造社, 昭和14(1939).  
Mann, Thomas,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1,2』, 홍성광 역, 서울:민음사, 2017.  
Witkop, Phillip 編, 『ドイツ戰歿學生の手紙』, 高橋健二 譯, 東京:岩波書店, 1938.

### 2. 논문 및 저서

-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1』, 서울:일지사, 1984(1999).  
김륜옥, 『토마스 만 작품의 한국 내 수용 현황 및 양상』, 『독일언어문학』 15, 2001, 독일언어문학연구회, 427~441쪽.  
김활, 『최재서 비평의 인식론적 배경』, 『동서인문학』 24,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2, 111~131쪽.  
사회영, 『제국 시대 잡지 국민문학과 한일 작가들』, 서울:도서출판 문, 2011.  
서승희, 『인문사(人文社)의 출판 기획 연구—단행본 출판과 총서 기획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2018, 147~191쪽.
- \_\_\_\_\_, 『식민지 후반기 조선문학의 재생산과 전승의 기획—인문사(人文社)의 출판 기획 연구 2』, 『우리문학연구』 62, 우리문학회, 2019, 423~454쪽.
- 이상경, 『제국의 전쟁과 식민지의 전쟁문학—조선총독부의 기획 번역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의 『보리와 병정(兵丁)』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58, 한국현대문학회, 2019, 115~156쪽.
- 이양숙, 『한국 근대 문예 비평의 논리』, 서울:월인, 2007.
- \_\_\_\_\_, 『일제 말기 비평의 존재 양상—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28, 한국비평문학회, 2008, 191~210쪽.
- 이진형, 『193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의 소설 이론—임화, 최재서, 김남천의 소설 장르 논의』, 서울:소명출판, 2013.
- 장갑상, 『Herbert Read의 문학비평관에 대한 연구』, 『새한영어영문학』 2, 새한영어영문학회, 1974, 61~87쪽.
- 전봉관, 『황군위문작가단의 북중국 전선 시찰과 입학수의 『전선시집』』, 『어문론총』 42,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315~347쪽.
- 하재연, 『『문장』의 시국 협력 문학과 『전선문학선』』, 『한국근대문학연구』 22, 한국근대문학회, 2010, 451~488쪽.
- 허혜정, 『나치스 문학과 친일 전쟁시(親日戰爭詩)의 논리』, 『동악어문학』 65, 동악어문학회, 2015, 197~241쪽.
- 高田里惠子, 김경원 역, 『문학가라는 병』, 고양:이마, 2017.
- 鹿野政直, 기미정 역, 『이와나미 신서의 역사』, 서울:AK, 2016.
- 三原芳秋, 『崔載瑞의Order』, 『사이間SAI』 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291~360쪽.
- 岸川秀實, 『주지주의 문학론과 주지적 문학론—비평가 최재서와 아베 토모지(阿部知二)의 비교문학적 고찰』, 『국제어문』 27, 국제어문학회, 2003, 203~226쪽.

<Abstract>

Choi, Jae-Seo's References and Humanity  
study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 Focusing on the Family Chronicle Novel and War  
Literature

Seo, Seung-Hui\*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books that Choi, Jae-Seo read around 1940, and reviews. In the late 1930s going through the trend of European literature, which was developed through in the 'world of events and behaviors' instead of the 'world of psychology and consciousness', 'family chronicle novels' and 'war literature' became subject to a new review. He read Thomas Mann's *Buddenbrooks*, centering on the modern theme regarding creation and division, and discussed the humanistic value of war literature by the medium of *A Letter from a German Student, who Died in the War* compiled by P.Witkop. The former was to evaluate and reorganize the past 20<sup>th</sup> century and intellectual human types, on the basis of his long-standing interest in dualistic ego of modern people, while the former was to think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ars and human, and the direction of war literature when there was a reinforced demand for mobilization and cooperation after the Sino-Japanese War. Reading and writing like this had meaning as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wholeness' that emerged as the biggest topic at the time regardless

---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of fascism and anti-fascism camps. But as the age of national literature began in the 1940s, Choi, Jae-Seo halted finding references in the tradition of European literature, and tried to look for a basis to scrap literalism and individualistic views of the world instead, citing the theory of Nazism culture.

Key Words : Choi, Jae-Seo, Herbert Read, Family Chronicle Novel, Character, Thomas Mann, *Buddenbrooks*, War Literature, Literary Value, *A Letter from a German Student, who Died in the War*, National Literature, Theory of Nazism Culture

■ 논문접수 : 2020년 7월 28일  
■ 심사완료 : 2020년 8월 17일  
■ 게재확정 : 2020년 8월 24일